



플루이드(FLUID)

주요내용설명서(국문백서)

Korean White Paper

2026년 4월 16일

Disclaimer

본 번역본은 2026년 4월 16일 기준의 플루이드(Fluid), 리브랜딩 전 가상자산인 INST의 블로그 및 리브랜딩 거버넌스 세부내용의 관련 내용 위주로 번역되었습니다.

빗썸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본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문의 내용이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측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번역본은 오픈 커뮤니티의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2018년, ‘디파이¹’라는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때부터 인스타덱(Instadapp)은 디파이 분야(이때는 주로 ‘오픈 파이낸스’라고 불림)를 선도해왔습니다. 인스타덱은 복잡한 디파이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쉽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미들웨어²였고, 플래시 론³ 같은 기술로 기존 프로토콜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바탕으로 메이커다오⁴와 함께 시작하여 꾸준히 발전한 결과 지금은 총 예치 자산(TVL)⁵ 20억 달러가 넘는 멀티체인 인프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인스타덱은 메이커다오, 에이브, 컴파운드와 같은 디파이 최대 렌딩⁶ 프로토콜들을 혁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플래시 론과 스마트 어카운트(Smart Accounts)를 직접 개발하며 시장에 없던 독창적인 기능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들웨어라는 한계 때문에 기존 프로토콜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만 가능했을 뿐 더 근본적인 차원의 혁신을 이루기는 어려웠습니다.

플루이드(Fluid)는 지난 수년간 렌딩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독창적인 기능들을 만들어내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력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플루이드는 유니스왑 V3, 에이브, 컴파운드, 메이커다오, 커브 등 여러 주요 프로토콜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 보안, 사용성과 같은 여러 핵심 요소들을 하나로 결합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플루이드는 디파이 생태계를 위한 차세대 기반 레이어(fundamental layer)로서 앞으로 수많은 혁신이 펼쳐질 새로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1년 반이 넘는 개발 기간과 수많은 개선 과정을 거쳐 드디어 플루이드를 자신 있게 선보입니다. 플루이드는 현재 렌딩 프로토콜 분야에서 **가장 진보하고, 안전하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에 더해 간편한 사용자 경험(UX)⁷까지 제공합니다.

¹ Defi (decentralized finance)

² Middleware

³ Flash loan

⁴ MakerDAO

⁵ Total value locked

⁶ Lending

⁷ User experience

플루이드의 핵심 컨셉은 다음 디파이 프로토콜들에서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 **유니스왑 V3**: 슬롯 기반 유동성을 통해 청산⁸ 효율을 100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최적화합니다.
- **메이커다오**: 볼트⁹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자산 보안을 강화하고 복잡성과 가스비¹⁰ 부담을 줄였으며 대출 한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 **컴파운드 & 에이브**: 풀 기반 유동성 모델을 채택하여 이용률에 따라 리스크와 이자율 곡선이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 **커브 & 유니스왑**: ‘스마트 부채(smart debt)’ 및 ‘스마트 담보(smart collateral)’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담보와 부채 자체를 DEX¹¹ 유동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

- 높은 담보 대출 비율(LTV)¹²: 이더리움(ETH) 담보 시 최대 95%까지 대출 가능
- 예치자와 대출자 모두를 위한 최적의 이자율
- 리스크 격리 및 자동화된 한도 설정을 통한 최고 등급의 보안
- 스마트 담보/부채를 활용, 맡긴 담보와 빌린 부채에서도 수익 발생
- 낮은 청산 페널티 (최저 0.1%)
- 저렴한 청산 가스비 (타 프로토콜 대비 3~4배 절감)
- 자금 분리 없는 자본 효율성 향상

⁸ Liquidation

⁹ Vault

¹⁰ Gas

¹¹ Decentralized Exchange, DEX

¹² Loan to value, LTV

비즈니스 모델

유동성 레이어

플루이드의 근간을 이루는 유동성 레이어는 다른 프로토콜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초 토대 역할을 합니다. 유동성 레이어는 모든 프로토콜의 유동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중앙 허브로서, 각 프로토콜의 대출 한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자금 이용률을 관리하며 다양한 이자율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토콜들은 이 유동성 레이어를 통해 자산을 예치, 인출, 대출 및 상환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사용자는 다양한 앱(상위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이 앱들이 플루이드의 통합 유동성 레이어를 활용해 모든 금융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유동성 레이어는 현재 디파이 생태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바로 **유동성 파편화**¹³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디파이 시장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버전의 프로토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토콜이 아무리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기존 버전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까지는(특히 별도의 보상 정책이 없다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프로토콜은 유동성 '0'에서 시작해야 하며 예치자와 대출자가 균형 있게 모여야 기존 버전과 비슷한 안정적인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레이어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유동성 레이어 위에 구축된 A 프로토콜에서 B 프로토콜로 이동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유동성 레이어의 총 유동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자율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플루이드 이용자들은 유동성을 분산시킬 필요 없이 새로운 기능이나 프로토콜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토콜의 새 버전이 대출자에게 더 높은 LTV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출자들은 즉시 새 버전으로 이동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치자들은 아무런 자본 이동 없이도 더 나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한도

모든 금융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일일 지출 한도 설정이나 거래의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확보합니다.

¹³ Liquidity fragmentation

디파이 프로토콜들 역시 부채 한도(Debt Ceiling)와 같은 유사한 제한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커다오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 부채 한도를 사용합니다. 에이브 V3의 격리 모드(Isolation Mode)나 컴파운드 V3의 자산 공급량 제한 역시 비슷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플루이드의 유동성 레이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된 한도**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은 프로토콜의 자금이 설정된 한도에 가까워질 때마다 매 블록 단위로 하여 실시간으로 부채 및 담보의 한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소규모 대출은 원활하게 처리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고래(거액 투자자)의 움직임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플루이드 위에 구축된 특정 프로토콜에 코드 취약점이나 경제적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유동성 레이어가 1차적으로 비정상적인 대규모 대출 및 인출을 차단합니다. 이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커뮤니티가 멀티시그¹⁴ 지갑을 통해 문제가 된 프로토콜을 일시 중지시키는 등 거버넌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유동성 레이어 자체는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로직 없이 단순하게 설계된 컨트랙트입니다. 이 레이어의 유일한 임무는 모든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한곳에 모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하고 진보한 알고리즘은 플루이드의 기반 레이어가 아닌 그 위에 구축되는 상위 프로토콜 단에서 실행됩니다. 이러한 역할 분리 덕분에 만약 특정 상위 프로토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그 피해 범위를 해당 프로토콜 사용자에게만 한정하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루이드 생태계 내에서 특정 프로토콜과 자산의 신뢰도가 검증되면 대출 및 공급 한도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며, 반대로 신규 프로토콜에는 매우 엄격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유동성 레이어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프로토콜을 안전하게 생태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한도는 아래와 같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 기본 한도
- 최대 한도
- 비율
- 한도 (%)

지금까지는 플루이드의 기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구축될 혁신적인 초기 프로토콜들과 이 프로토콜들이 전체 생태계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¹⁴ Multisig

렌딩 프로토콜

플루이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은 바로 렌딩 마켓(Lending Market)입니다. 렌딩 마켓에서 사용자는 금융의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행위, 즉 ‘예치하고 이자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파이 생태계에는 대출자보다 예치자가 2~5배가량 더 많습니다. 플루이드의 렌딩 프로토콜은 대출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제거하고, 이들 다수의 예치자를 위해 극도로 단순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렌딩 프로토콜의 발전은 대부분 대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작 새로운 기능의 혜택은 대출자에게 돌아가는데도 예치자들까지 번거롭게 자산을 새 프로토콜로 옮겨야만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치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함을 야기하였습니다. 플루이드의 렌딩 프로토콜은 바로 이 모순을 해결합니다. 예치자는 자산을 한 번만 맡겨두면 그 후 대출자를 위한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자산을 옮길 필요 없이 향상된 이자율과 같은 혜택을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며 장기적으로 안전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루이드의 렌딩 프로토콜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개발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심하고 자신들의 서비스를 그 위에 구축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과거 밸런서가 에이브 풀을 만들거나 메이커다오가 컴파운드나 에이브에 DAI를 공급했던 사례와 같습니다.)

플루이드의 렌딩 프로토콜은 가장 단순한 보상 모델을 채택했으며 ERC4626¹⁵ 표준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스 사용량을 최적화하여 다른 개발자들이 가장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볼트 프로토콜

볼트 프로토콜은 플루이드의 가장 진보된 프로토콜로서 대출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자본 효율성 향상, 높은 LTV, 유리한 이자율, 낮은 청산 페널티, 스마트 부채 및 스마트 담보 기능 등 현재 시장에 있는 다른 대출 프로토콜을 뛰어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혁신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UX는 가장 단순하고 간편하게 구현했습니다.

과거 유니스왑 V3가 지정가 주문¹⁶ 방식을 혁신했듯이 볼트 프로토콜은 청산 방식을 혁신합니다.

사용자 경험은 메이커다오의 볼트와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메이커다오와 달리, 볼트 프로토콜 사용자는 다른 일반적인 렌딩 프로토콜에서처럼 자신이 맡긴 담보에서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에이브의 렌딩 마켓과 메이커다오 볼트의 장점만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¹⁵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4626

¹⁶ Limit order

높은 LTV

프로토콜이 어느 정도의 LTV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청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실 채권을 적시에 처리하는 청산 과정은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LTV를 낮추거나 청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LTV를 낮추는 것은 사용자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높은 LTV를 제공하는 경쟁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청산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면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높은 LTV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의 경험과 효용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볼트 프로토콜은 청산 메커니즘 설계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에게 ETH 담보 가치의 최대 95%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청산 메커니즘

볼트 프로토콜의 청산 메커니즘은 유니스왑 V3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기존 렌딩 프로토콜 대비 100배 이상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핵심은 특정 가격 범위 내의 모든 사용자를 한 명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동시에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가스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 V3에서 스왑이 발생할 때 ‘트레이더’는 각 범위 주문을 인지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거래로 모든 활성 범위 주문을 체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볼트 프로토콜은 청산인(또는 트레이더)이 각 부실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알 필요 없이 모든 부실 포지션을 한 번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볼트 프로토콜의 청산 가스비는 약 15만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니스왑 V3의 스왑 가스비(약 12만)와 비슷한 수준이며, 단일 포지션 청산에 30만에서 100만에 달하는 가스비가 드는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들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볼트 프로토콜의 청산은 ‘더 유리한 이자율을 가진 스왑’처럼 작동합니다. DEX 애그리게이터¹⁷ 입장에서도 새로운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¹⁸를 추가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어 트레이더들은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어떤 규모의 트레이더든 원하는 만큼의 부실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실 채무 전체를 한 번에 청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트레이더조차 적시에 부실 채무를 청산하고 최적의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¹⁷ Aggregator

¹⁸ Automated market maker

필요한 만큼만 청산

볼트 프로토콜에서는 포지션이 다시 안전해질 때까지, 즉 부족한 만큼만 정확히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상은 절대 청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산되는 부채는 5%에 불과하지만 다른 프로토콜에서는 포지션 전체(50%~100%)가 청산되기도 합니다. 즉, 볼트 프로토콜에서 청산을 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5배에서 10배나 적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청산하는 방식은 개인을 넘어 생태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생태계의 모든 사용자가 볼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대규모 청산 시 발생하는 강제 매각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연쇄적인 청산 효과를 5배에서 10배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디파이 생태계 전체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낮은 청산 페널티

볼트 프로토콜의 청산 페널티는 최저 0.1%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에 달하는 다른 프로토콜들과 비교했을 때, 청산 시 발생하는 페널티 비용을 최대 50배에서 100배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¹⁹

오라클은 모든 렌딩 프로토콜의 존립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오라클은 최신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실 위험이 있는 자산을 적시에 청산하고 효율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LTV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의 볼트 프로토콜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가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유니스왑과 체인링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오라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총 세 가지의 다른 시간 가중 평균 가격(TWAP)²⁰ 체크포인트와 체인링크 가격을 가져온 뒤 이를 현재의 유니스왑 가격과 비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되지 않았는지 교차 검증합니다. 이러한 다중 검증 절차는 가격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혹은 조작에 드는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여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디파이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청산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¹⁹ Oracles

²⁰ Time-weighted average price

DEX 프로토콜

DEX 프로토콜은 스마트 부채와 스마트 담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맡긴 담보나 빌린 부채를 트레이딩을 위한 유동성으로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DEX 프로토콜 V1은 유니스왑 V2와 V3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와 유사할 것입니다. 즉, **자동으로 리밸런싱²¹되는 단일 범위 지정 주문** 방식을 채택하여 UX는 유니스왑 V2처럼 단순하게, 유동성 집중도는 유니스왑 V3처럼 강력하게 구현됩니다. V2는 현재 구상 단계에 있는 유니스왑 V4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담보 풀은 일반적인 AMM 풀과 유사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담보 자산을 유동성으로 공급하여 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는 동시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 부채 풀은 일반적인 AMM 풀의 정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자신이 빌린 부채를 유동성으로 공급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부채(이자)를 경감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능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생태계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맡겨둔 담보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빌린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할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DEX 프로토콜은 부채마저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생산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스마트 부채

스마트 부채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부채를 생산적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부채 자체를 트레이더들이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부채는 일반 AMM 풀과 작동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일반 AMM 풀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유동성을 늘리는 데 쓰이지만, 스마트 부채 풀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발생한 수수료가 부채를 자동으로 갚아주어 실질적인 대출 이자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동성

스마트 부채 풀의 유동성은 사용자들이 볼트를 통해 자산을 빌려가면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ETH를 담보로 맡기고 유에스디코인(USDC)/테더(USDT) 스마트 부채 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바로 그 대출 행위가 스마트 부채 풀의 유동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출은 스마트 부채 풀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출자는 풀의 일정 지분을 할당받습니다.

²¹ Rebalancing

부채에서 수익을 얻는 경험

기본 대출 이자율은 (이자율 곡선 관리에 따라) 보통 3~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거래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간 수익률(APR)²²은 매일 변동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업계 최상의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플루이드는 사용자의 포지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부채 풀을 구성하는 특정 토큰의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사용자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담보

스마트 담보 풀은 다른 AMM 풀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담보 자산을 유동성으로 공급하여 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는 동시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마트 담보 V1은 자동으로 리밸런싱되는 단일 범위 지정 주문 방식을 통해 유니스왑 V2와 V3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형성되는 방식이나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 및 리스크 역시 기존 AMM 모델과 유사합니다.

²² Annual percentage rate

INST(FLUID의 리브랜딩 전 가상자산)

2018년, 디파이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스타덱스를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 인스타덱스는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들을 달성했습니다.

- 약 **55,000개의 인스타덱스 DSA**(DeFi Smart Account) 생성
- 인스타덱스 DSA 내 **총 예치 자산 50억 달러 이상** 돌파
- 이더리움 전체 **플래시 론 거래량의 50% 이상**을 인스타덱스가 처리

인스타덱스 프로토콜의 모든 권한을 커뮤니티의 손에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INST 거버넌스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프로토콜의 모든 업그레이드는 커뮤니티 토론과 INST 보유자들의 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INST 분배

INST는 제네시스(최초) 시에 총 1억 개(100,000,000 INST)가 발행되었으며 4년에 걸쳐 분배됩니다. 초기 분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000,000 INST: 인스타덱스 커뮤니티 구성원
- 23,794,114 INST: 현 팀원 (4년 베스팅²³)
- 12,078,714 INST: 투자자 (4년 베스팅)
- 7,851,941 INST: 미래의 팀원 및 생태계 파트너십
- 1,275,231 INST: 어드바이저 (4년 베스팅)

참고: 베스팅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²³ Vesting

INST 분배 및 보상 프로그램

디파이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바로 사용자들입니다. 따라서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나갈 업그레이드 권한은 누구보다 사용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출시와 함께 다음 세 가지 보상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디파이 사용자 대상 토큰 지급 (2021년 6월 16일 기준)

출시 시점 INST 분배는 특정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디파이 생태계에 기여해온 사용자들을 위해 소급 적용되어 이루어집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또는 에이브를 이용해온 31만 2천여 명의 사용자들에게 총 1,000만 개의 INST가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폴리곤 네트워크의 에이브 사용자 5만여 명에게도 100만 개의 INST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토큰들을 수령하려면 인스타덱스에서 계정을 DSA v2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분배 수량 산정을 위한 세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받는 INST 수량은 순자산 가치(총 담보 - 총 부채)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보다 많은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순자산 가치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자산 규모 대비 받는 INST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 인스타덱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안으로, 인스타덱을 통해 자신의 포지션을 관리해 온 사용자들의 경우 토큰 분배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순자산 가치를 **두 배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포지션 스냅샷은 이더리움 메인넷 블록 높이 #12644000, 폴리곤 블록 높이 #15773000을 기준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보상은 일부 또는 전체를 한 번이라도 수령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동성 채굴 (기간: 2021년 6월 16일 ~ 2021년 9월 16일)

계정을 DSA v2로 가져오기(import)하면,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유동성 채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상의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에이브 포지션의 순자산 가치에 비례하여 총 3,000,000 INST가 분배되었습니다.

참고: INST는 인스타덱 대시보드에서 매주 청구할 수 있으며, 베스팅이나 락업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니스왑 V3 스테이킹²⁴ (기간: 2021년 6월 16일 ~ 2021년 9월 16일)

사상 최초로, 유니스왑 V3의 특정 가격 범위(Price Range) 풀을 활용한 유동성 채굴이 시작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더리움 메인넷의 ERC20을 기반으로 하며, 3개월간 다음 풀에 참여하여 INST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풀 #1: 최소 가격 0.01 ETH/INST, 최대 가격 0.04 ETH/INST
 - 해당 풀에는 250,000 INST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²⁴ Staking

- 풀 #2: 최소 가격 0.04 ETH/INST, 최대 가격 0.1 ETH/INST
 - 해당 풀에는 750,000 INST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플루이드(FLUID) 리브랜딩 계획안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브랜딩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은 알고리즘 기반 바이백²⁵, 독보적인 DEX 효율성, 전략적인 성장 인센티브와 같은 혁신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통해 플루이드는 디파이의 핵심 유동성 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100억 달러 시장 규모 달성 및 DEX 생태계 내 리더십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트레저리²⁶의 12%를 주요 성장 이니셔티브에 일회성으로 할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인스타덱 거버넌스는 지난 4년간의 약세장에서도 신중한 운용 기조를 유지한 덕분에 트레저리의 43%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원을 활용하여 플루이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디파이 혁신을 가속화할 시점입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INST는 FLUID로 1:1 비율로 자동 전환됩니다. 홀더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토큰 주소와 총 발행량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가치 희석²⁷ 없이 토큰이 원활하게 전환될 것입니다.

이더리움 토큰 주소(0x6f40d4A6237C257fff2dB00FA0510DeEECd303eb)와 총 발행량(1억 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바이백

플루이드의 연간 수익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전략적 바이백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x \cdot y = k$ 모델을 따르며, FLUID의 완전희석 시가총액(FDV)²⁸에 기반해 바이백 규모가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 수익의 최대 100%가 바이백에 할당되며, 이 비율은 바이백 및 가치 증대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 미사용 자금은 거버넌스 트레저리로 반환됩니다.
- 토큰 가격이 높을 때는 수익의 낮은 비율을,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높은 비율을 바이백에 사용하여 효율을 높입니다.

²⁵ Buyback

²⁶ Treasury

²⁷ Dilution

²⁸ Fully diluted valuation

- 바이백된 모든 토큰은 트레저리에 보관되며 그 활용 방안(소각, 보유자 분배, 보상 등)은 거버넌스가 결정합니다.
- 바이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제안을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성장 인센티브

2025년 말까지 100억 달러 시장 규모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월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렌딩 활성화: 매월 총 발행량의 최대 0.25%
- DEX 활성화: 매월 총 발행량의 최대 0.25%

FLUID 유동성 생성

IGP-56 제안에 따라 거버넌스는 총 발행량의 5%를 DEX 풀의 FLUID 유동성으로 공급하여 토큰의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해당 유동성은 넓은 가격 범위에 공급되어 다오²⁹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참고: 현재 총 발행량의 2.5%가 DEX 유동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유동성 공급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다오로 반환됩니다.

전략적 자금 할당 (트레저리 12%)

제안된 트레저리 12%의 할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거래소 거래지원
- 2%: 마켓 메이킹³⁰
- 5%: 투자 유치 관련 활동
- 3%: 팀 성장 및 신규 이니셔티브 지원

²⁹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³⁰ Market making

로드맵

플루이드는 별도 로드맵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블로그 및 X(구 트위터)를 통해 사업 현황에 대한 공지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https://blog.instadapp.io/>
- X(구 트위터) <https://x.com/instadapp>
- X(구 트위터)2 <https://x.com/0xfluid>

*상기 링크는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한 링크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